

일본 ‘마이멤버카드’ 일원화 방침

강윤지 연구원

요약

일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2024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멤버카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밝혔으나, 원활한 도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 정부는 마이멤버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마이멤버카드 활용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2022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멤버카드’¹⁾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밝혔으나 원활한 도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²⁾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일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본 디지털청은 마이멤버카드 기반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의료, 교육, 방재 등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함³⁾
 - 마이멤버카드에 건강보험증 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마이멤버카드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⁴⁾ 마이멤버카드 일원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29.3%에 그치고, 마이멤버카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27.7%로 나타남
 - 마이멤버카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 29%, 반대 42.6%로 반대 의견이 우세함
 -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⁵⁾에 의하면, 2022년 11월 27일 기준 마이멤버카드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비율은 병원 50.2%, 치과진료소 27.2%, 일반진료소 25.0%, 약국 61.4%로 전체 평균은 36.3%에 불과함
 - 일본의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의 의료 현장 실태 및 의식 조사 결과⁶⁾, 마이멤버카드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한 의료기관 중 ‘이용환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85%였고, ‘유효한 보험증이 무효 처리됨’ 59%, ‘카드 리더기 오류’ 39% 등의 문제 발생을 보고한 비율도 높았음
- 일본 정부는 마이멤버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보급률을 높이고자 함
 - 마이멤버카드를 사용하면 병원 및 약국에서의 청구 부담액을 줄여주고, 의료기관의 접수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⁷⁾

1) 마이멤버카드는 IC칩이 삽입된 플라스틱 카드로 12자리의 개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분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음

2) Moneyizm(2022. 10. 18), “2024년 가을에健康保険証が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一本化へ「マイナ保険証」で何が变わる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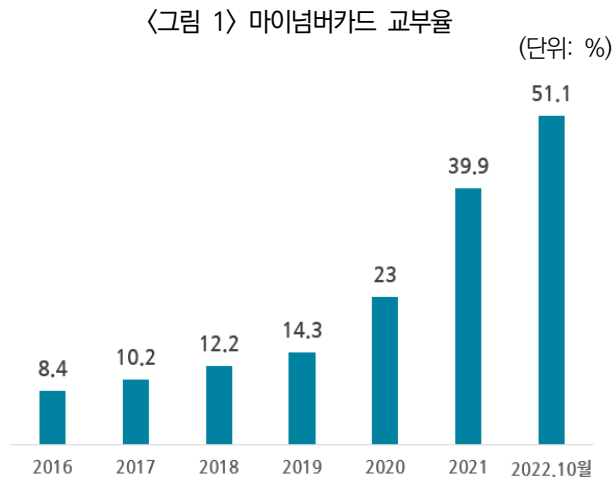
3) デジタル庁(2022. 6. 7), “デジ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重点計画”

4) Kioicho Strategy Institute(2022. 10. 20), “現行の健康保険証とマイナ保険証「併用を」34%”

5) 厚生労働省(2022. 11. 27), “オンライン資格確認の都道府県別導入状況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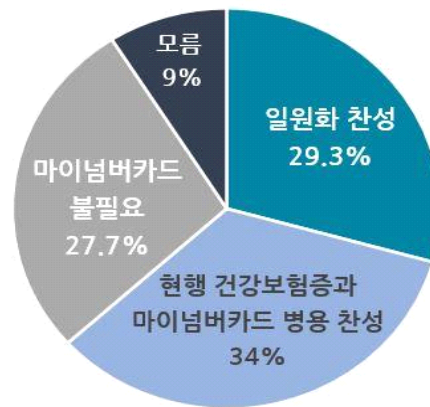
6) 全国保険医団体連合会(2022. 11. 4), “保険証廃止、オンライン資格確認義務化に関する調査”

- 2022년 10월부터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병원 청구 부담액이 종이형 건강보험증보다 저렴해져 초진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12엔을 부담해야 했으나,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할 시 6엔만 부담하면 됨
- 청구에 설치된 마이넘버카드 리더 단말기 인식을 통해 청구 접수가 이루어지며, 리더 단말기의 얼굴 인증 기능을 통해 본인 확인을 자동으로 시행하므로 건강보험증의 부정 이용도 사전 방지가 가능함
-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 폐지 방침에 의해 사실상 마이넘버카드 발급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2022년 10월 말 기준 마이넘버카드의 교부율은 51.1%로, 마이넘버카드 이용자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⁸⁾



자료: 厚生労働省(2022. 11)

〈그림 2〉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 내 찬반 의견



자료: Kioicho Strategy Institute(2022. 10. 20)

○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마이넘버카드 활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회사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관방(官房) 장관은 스포츠나 콘서트 티켓 구입 및 행사 입장 시 마이넘버카드에 탑재된 전자 증명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⁹⁾
 -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확실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여권으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연령 확인이 필요한 술·담배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셀프계산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허가함¹⁰⁾
- 일본생명보험은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업무를 2022년 12월부터 시작함¹¹⁾
 - 마이넘버를 등록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내용 변경 과정을 간소화하고, 연금보험 계약자가 연금 수령 시 증명서 제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둠

7) Otona life(2022. 11. 13), “「マイナ保険証」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を解説 - 従来の健康保険証と何が違うの?”

8) 厚生労働省(2022. 11), “マイナンバーカード交付状況について”

9) 朝日新聞(2022. 11. 28), “チケット購入、マイナカードで本人確認・転売防止へ活用、政府が検討”

10) 日テレNEWS(2022. 11. 30), “酒・たばこ販売にマイナカード利用を検討 松野官房長官”

11) 일본경제신문(2022. 11. 25), “日本生命、マイナカードで保険金請求を促進”